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배출 전국 최고

1차 시험 34명 합격

최근 5년간 손해사정사 전국 최고의 합격자를 배출해온 금융보험학과(학과장 김광국)가 지난 4월 22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시행한 제35회 보험전문인자격시험 중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총 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분야별로는 3종 대인에 조전완 학우 외 13명, 3종 대물에 차응성 학우 외 5명, 4종 제3 보험에 최상원 학우 외 13명 등이다. 금융보험학과는 오는 8월에 실

시되는 2차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20명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보험학과는 최근 5년간 손해사정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 수는 2006년 5명, 2007년 7명, 2008년 12명, 2009년 12명, 2010년 17명, 2011년 18명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손해사정사를 배출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전국 1위로 집계되었다.

김광국 교수는 전주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격증 없는 지방 대학생들에게 높은 연봉의 보험 회사에 입사하는 길이 너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에 합격시키는 것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여름방학은 큰 일났다. 2차 시험준비로 금융보험학과 학생과 교수 모두가 방학없는 시간을 보내야하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활짝웃었다. (자세한 인터뷰 본보 10면 참조)

「사진설명 : 지난 17일 분수대 앞에서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준비반 학생들과 김광국 교수가 합격축하 세레모니를 펼치고 있다.」

전주대신문 창간 47주년 맞아 21일, 교육방송국 개국기념 공개방송

전주대신문이 올해로 창간 47주년을 맞았다. 1965년 5월 15일 ‘영생대학보’로 출발하여 ‘전주대학보’, ‘전주대신문’으로 독자들을 만나왔다. 정확한 취재, 공정한 보도, 참신한 제작을 사시로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고 역사를 대변하는 신문을 만들어온 전주대신문은 대학살립이념인 기독교정신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성과 낭만의 소리’ 교

육방송국(실무국장 이한솔/상담. 4)은 개국 29주년을 맞아 지난 5일 교육방송국과 시내 일원에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방송국 출신 동문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방송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21일 12시부터 학생회관 로비에서 방송국 개국기념 공개방송을 실시한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해맑은 웃음을 지니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웃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곤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즐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에는 기독교 명문 대학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명문이 되려면 우리 구성원들의 모습 속에
그럴만한 어떤 것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 명문이라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 속에
그럴만한 예감이 느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난 50 여 년 동안 우리 대학에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명문 대학의 꿈을 꾸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을 되찾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하소서. 아멘

총학생회장, TAXI 운전하며 학생들 만나



캠퍼스 돌며 학생들 요구사항 들어 동영상은 2학기 페스티벌 때 공개

제39대 똑, 똑, 똑 총학생회(회장 이형훈)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TAXI를 잡아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학생회측은 모든 진행과정

을 카메라 촬영을 했다. 참여학생들은 이형훈 회장이 직접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캠퍼스를 돌며 질문과 답변 등 대화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박미리, 한혜지 학우(관광경영), 중국인 유학생 등 50여명

의 학생들이 참가해 전주대에 바란다, 총학생회에 바란다, 교수님께 한마디, 총장님께 말씀드린다 등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은 온리원사태의 조속한 해결, 통학버스 운행횟수 확대, 학생식당 메뉴의 다양화, 진리관 엘리베이터 설치, 기숙사 통금시간 자율,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 기숙사 식당 영양 실태 관리 철저, 도서관 24시간 개방, 흡연구역 지정, 순영관 주변 휴식공간 마련 등이었다.

4일 동안 택시를 운전하며 학생들을 만난 이형훈 회장은 "학생들의 내놓은 의견은 모두 현장의 소리로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교수님들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때는 마음이 훈훈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2학기 페스티벌 때 학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학생회관에서 담배 못핀다

17일, 총동연대표자회의에서 밝혀

제 28대 똑똑똑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회장 이종호/물류무역, 3)가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제 2차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대표자 140명 중 110명이 참가한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대동제 2학기 연기, 성년의 날 기념행사인 '더위사냥', 제 5회 총동연 페스티벌, 제 1차 대표자 IT에 대한 설명과, 경고동아리와 제명동아리 안내, 학생회관 내 흡연, 음주에 대한 금지조치 등을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최연화 학우(총동연 기획2팀 실장/작업치료, 2)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고 추진

해야할 일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오길 기대했는데 참석인원이 적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종호 회장은 "학생회관 411호 총동연 사무실에서는 동아리회원들을 위한 곳이니 언제든지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총동연은 21일에 학생회관 앞에서 성년의 날 기념행사인 '더위사냥'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이종호회장은 "건전하고 모범적인 성년의 날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참가를 권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색 프로그램 각광

커리어서포터즈, 우결, 모의면접경진대회 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차진아)에서 진행 중인 '커리어서포터즈', '우리 결혼했어요', '모의면접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취업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커리어서포터즈는 지난 16일 스타센터에서 발대식 및 간담회를 가지고 활동에 들어갔다.

손강혁 학우(경찰행정, 4)를 비롯한 26명의 서포터즈들은 주 1회 이상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하고 교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취업지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수 활동팀은 시상금이 제공된다.

남·여 파트너십 향상 및 양성평등한 동반자적인 삶을 위해 마련된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이 캠퍼스커플 20쌍을 대상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참여커플에게는 상품권을, 우수커플에게는 커플링 증정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JJ 선남선녀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21일부터 30일까지 스타센터에서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선발된 40명의 학생들은 팀별로 나누어

총 3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가자에게는 StarT CP 포인트 10점을, 우수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오는 31일 교수연구동 801호에서 있을 모의면접경진대회를 앞두고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 면접유형은 개별 혹은 집단 면접으로 참가 희망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2부를 준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학생회관 207호)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학생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며 대회 수상자 SP 20점~10점과 상품권 지급(대상 20만원, 최우수상 10만원, 우수상 5만원(2명), 장려상 2만원(5명) 등)을 지급하고 수상자를 제외한 참가자 전원에게 CP 10점을 부여한다.

면모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기업과 문화탐방' 프로그램은 2009년 1학기부터 취업지원처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여수세계박람회 관람

중국인 유학생 80여명은 지난 12일 '한국기업과 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제해금교수(경영학부)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했다.

제해금교수는 "외국인 유학

생들에게 한국 해양산업의 발전 및 미래 해양발전 트렌드를 알리기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탐방지도 선택했다"며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등 기업관에서 한국기업들의

명사특강 - 한국 Fastner(주) 윤병국 회장

기업환경과 취업비전

학생생애개발처(처장 최홍식)는 지난 9일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한국 Fastner(주) 윤병국 회장을 초청하여 명사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명사특강은 급변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 변화에서 리더의 역할,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 취업환경 등에 대하여 기업문화

를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윤병국 회장은 효성그룹 효성물산에 23년간 근무하였으며, 우진 전자통신(주) 총괄 부사장, 성문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아이비랜드(주)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Fastner(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보 5면 참조>

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전시회

한식조리학과(학과장 한복진)는 오는 1일(금)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2일(토)까지 스타센터 3층 스타 아트 갤러리에서 '제10회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한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개인작품을 '한육', '놀이', '국악', '한글', '한

복'의 소주제로 나누어 49점을 전시하며, 식품상품개발 교과목을 통한 공동작품은 장류와 곡류 또는 자율주제로 27점이 전시된다.

학생들이 직접 개발하고 만든 각종 다과와 함께 '제기치기'와 '떡지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호텔경영학과, 해외호텔 정규직 취업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안세길) 재학생 12명은 지난 8일 싱가포르 그랜드 하얏트 채용면접에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취업이 결정되었다.

이번 채용 면접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현지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인사 담당자가 본교에 방문하여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시행한 결과 총 12명이 정규직으로 합격하여 7월부터 현

지에서 근무한다. 지난 해 6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 방문 면접을 한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실천 면접을 통해 19명의 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올 상반기에 샹그릴라 호텔 싱가포르 4명, UAE 셰라톤 호텔 2명, 플루튼 호텔 싱가포르 1명 등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77명이 해외호텔에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또 가고 싶다.

해양의 가치와 의미, 가능성 생각



왕소설
(물류무역. 3)

중국유학생을 위한 '한국기업과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하고 왔다.

여수세계박람회에서 다루는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으로 100개국, 5개 국제기구, 10개 기업 및 NGO, 16개 지자체가 참가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규모가 매우 컸다.

박람회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빅오(big-o)였다. 빅오는 여수엑스포장 앞바다의 방파제를 육지와 연결해 만든 해상문화공간으로 'O'는 바다를 뜻하는 영어 'Ocean'의 이니셜이자 미래를 의미하는 영어 'ZERO'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크고 넓었으나 아름다웠다.

한국인의 바다정신과 해양한국에 미래



비전을 제시한 한국관을 보고 세계관으로 이동했다. 중국, 미국, 태국, 일본, 호주, 스위스, 터키,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해양의 관계와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인류에게 해양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무궁무진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는 나라의 운명과도 직결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곳은 싱가포르관이였다. 여기서는 "파라독시티: 작은 도시, 큰 꿈 - 역설이 만든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도시기반시설과 푸르른 자연 공간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현대적인 메트로폴리

스,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작지만 거대한 꿈위에 이룩한 싱가포르는 말 그대로 대조의 도시이다. 내부는 싱가포르 학생들이 지혜를 통해 쓰레기로 만든 예술품으로 꾸며놓았다. 정말 놀랄 정도로 예뻐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중국관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 중국관은 가속적발전을 주제로 해양과 해안의 개발과보호, 해양기술, 그리고 해양문화 이 3가지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산업발전에 대해서 소개했다. 중국관에서 동화관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제를 전달했다. 개인적으로 중국관에 있는 흰바탕에 코발트색의 그림이 있는 자기로 만든 벽이 제일

인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춤과 그 벽은 모두 중국의 문화와 잘 조화할 것 같다.

또 하나, 해양문명도시관은 해양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아라비아에서 동북아시아까지 인류문명의 교류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생활공간 미래 해중도시를 체험함으로써 미래해양문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한테 전달했다.

전시장을 돌면서 점차 해양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되었다. 해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해양보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수는 해양을 주제로 선정하지 않았을까하는.

저녁에는 대표적인 건물 빅오 앞에서 공연을 봤다. 개막식 때 bigbang이 왔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간 날은 원더걸스의 공연이 있었다. 객석을 다 채우고 위에 있는 다리에서도 사람들이 서서 구경을 했다.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다들 원더걸스에 따라 노래를 했다. 분위기가 최고로 올랐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으나 공연장은 후끈거렸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람회관람 소감을 나눴다. 하루가 너무 짧았다. 방학에 다시 오겠다, 즐겁다, 해양의 중요성을 알았다 등..... 그 중 한국관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의견과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학교측에 감사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나 또한 그랬고.



'마음사랑병원'에서의 6개월..

내 삶의 터닝포인트! 발견하게 된 계기



유진설
(상담심리. 2)

작년 10월. 군대에서 전역을 한 후 복학까지 몇 달의 여유가 있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군대가기 전에 했던 식당 서빙같은 단순한 돈만 버는 일보단 돈을 벌면서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마음사랑병원에서 보호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이고 출퇴근 버스도 운행한다는 말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치렀다. 합격을 한 후, 11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마음사랑병원... 정신병원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환경이기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첫 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환경 속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일을 했는데 단순히 환자 안전관리정도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어림없는 생각이였다. 아침부터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 투약관리부터 목욕관리, 산책관리, 간식수령, 병동 환경정리, 식사관리, 1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러보내기, 외진환자 보내기 등과 같이 쉴새 없이 진행되는 일. 그리고 100명이 넘어서는 환우분들 얼굴과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야하고 몇몇 다루기 힘든 환우들은 일의 강도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첫날을 보내고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일에 그만 뒤야할까라는 생각도 했다.

새로 들어오는 보호사 중 절반이 하루 이틀하고 연락도 없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가기도 했다. 하지만 군대도 잘 다녀온 마당에 기왕 시작한 일인 만큼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는 의욕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출근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배워갔다. 이렇게 배우면서 일을 계속 하다보니 환우분들 얼굴과 이름도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일도 익숙해지면서 점점 일이 재밌고 즐거워지게 되었다.

처음엔 정신질환 환자들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단순히 환자와 보호사로서 일을 한

다는 생각으로 환우분들을 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병동 환우분들을 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과 정이 들었다. 그분들도 나와 크게 다를 거 없는 사람이고 단지 팔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처럼 그분들은 정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약간 불편할 뿐이지 편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더 순수한 면이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환우들을 볼 때면 오히려 그들을 통해 반성하고 배운 점도 많았다. 또 한 다른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 내 성격이 이 일과 잘 맞는다는 것도 느꼈다. 일이 적성에 맞고 즐겁게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환우분들도 날 믿고 신뢰해주시기 시작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 놀러와서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출근하는 시간이 기쁘게 다가오기도 했다.

사실 원래 계획은 올해 2월까지만 일하고 3월부터는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에 매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버는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이미 돈은 둘째고 좋은 경험 쌓고 재밌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포에 맞추어 병동 책임간호사에게 부탁해서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근무 시간을 조절해서 계속 하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 하고 있다.

일을 계속하며 학교에 복학해보니 임상

심리라는 길이 이쪽 병원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이런저런 정보를 얻다보니 임상심리라는 길이 나에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으며 교수님께 말씀드리니 상담, 심리는 이론 못지않게 경험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하시며 계속 해보라고 권장해주시니 더 힘이 나서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었다.

물론 환우분들 중에 좋은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하는 환우들도 많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일을 병행하려니 너무 힘들고 학업에도 약간 지장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 정말 큰 만족을 느끼고 있고 군 전역후 2년 가까이 동떨어졌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힘들어지려는 시점에 좋은 터닝포인트가 된 일을 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뿌듯하다.

지금 마음 같아선 오래 하고 싶지만 학생 신분인 만큼 계속해서 할 수는 없다. 2학기부터는 그만두고 학업에 매진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좋은 경험을 쌓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 할 것이다.

나의 앞길에 좋은 터닝포인트가 된 일을 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더 발전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 특강을 듣고〉

타인중심의 사고와 긍정마인드를 가져라



강보람
(패션산업, 2)

그 날도 역시 평소와 다르게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진로탐색 시간.

이랜드그룹의 총 책임자, 박성수 회장의 특강 소식에도 사실 이렇다 할 별 큰 감흥은 없었다. 다만 '사회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런 저런 상황들과 부대끼고 있는 성공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뿐이었다. 이는 평소에 이랜드 그룹의 규모나 사업 분야, 경영 방법 및 성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특강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꾸만 관심

이 가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점점 더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었다.

박성수 회장의 특강 중 나에게 가장 큰 기대를 준 내용은 타인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신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판단한다. 그러나 타인 중심의 시각을 갖게 되면 타인의 시각에서 내 삶을, 나의 태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내가 그 가치를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요즘 나를 포함한 모든 대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을 쌓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회사가 나에게 이러한 조건들을 요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취업을 포함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의 요구를 알고, 내가 그 요구에 맞는 가치를 창조하여 전달할 수 있는가 살펴보는 타인 중심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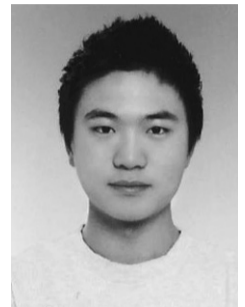
그리고 또 하나, 취업을 위해서는 회사와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였

다. 우리 대학 사회는 스펙 쌓기에 누구나 혈안이 되어있다. 자격증, 공모전, 토익 성적 등을 위해 때로는 대학생활의 고민과 행복을 양보할 때도 많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적극적이고 긍정적 태도라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을 말씀하실 때는 잠시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갖추는 것이 자격증이나 토익 성적을 취득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직업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단어인 Job과 Calling은 경제적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소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직업관이하고 한다. 이러한 두가지의 직업관은 분명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박성수 회장의 특강은 직업과 재능 - 우리 시대 대학생들의 가장 큰 화두와 같은 두 단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재능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좋아해줄 때 재능이라는 정의는 언제나 'What-어떤 일을 할 것인가' 를 고민하던 우리에게 'Why-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 'How-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를 묻고 있는 것 같았다.

〈고건총장 특강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문종영
(경영, 2)

그동안 여성들이 사회진출에 많은 불공평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번 총장님의 특강을 듣고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현황을 하나하나 짚어주시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가 향상된 역사적 배경이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놀라웠습니다.

현재는 남녀평등을 넘어서 '여성 고위 관리직이 많은 기업일수록 창의성이 높고 소통이 잘되며 혁신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는 연구결과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총장님께서 살아오신 삶의 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시간이 가장 감동이 되었습니다. 계속 여운이 남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총장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물질적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 정서적으로 교만하지 말라 건강관리를 잘해라

첫 번째, 물질적 욕망으로 스스로 주저앉지 말라. 대다수 사람들은 남의 이권을 가로챌거나 뇌물을 받음으로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것을 허다하게 많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서적으로 교만하지 말라. 남들은 배려하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을 선호하므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배려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건강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일이 주어졌을 때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강한 기초체력 반드시 길러야 하며, 건강관리도 하나의 성공의 지름길이라 강조하셨습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생리적 해결을 할 시간마저도 부족하여 자칫 기회를 놓칠 정도로 바쁜신 와중임에도 저희 한명 한명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보듬어주시던 모습은 평소 묵묵하게 생각했던 총장님의 이미지와는 달리 가족같은 친근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제가 비록 남자지만 이번강의를 통해 남성이 아닌 여성의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고,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총장님이시기전에 인생선배로 생각하고 위의 강조한 사항들을 명심하겠습니다.

〈윤병국 회장 특강을 듣고〉

자신을 브랜드화 하여 차별화된 특성을 만들어라



남오현
(영미언어, 3)

윤병국 회장님의 특강을 듣고 최근 세계의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대학생들의 미래진로탐색에 대하여 좀 더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의 경영환경은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전환된 패러다임은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특성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사회의 디지털화와 개인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정보 집약 산업 시장이 확대되었는데, Smart 혁명과 Convergence 현상의 심화가 그 특징이 된다. 이 현상은 기술의 집적과 각 분야의 경계가 무너져 한 가지의 매체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

한 현상은 유통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월마트가 그 예가 된다. 월마트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것을 소비하는 편리성과 많은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는 앞으로 유통산업의 비전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Smart 혁명을 통해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는 일대 일의 관계와 폐쇄성에서 벗어나 일대 다수와 개방성의 특징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마켓의 지향점과 목적이 변화되었는데, 3.0 시장 시대가 도래되었다.(3.0 시장이란 제품판매-1.0 시장 과 고객만족 및 보유-2.0 시장에서 벗어나 가치 중심적인 시장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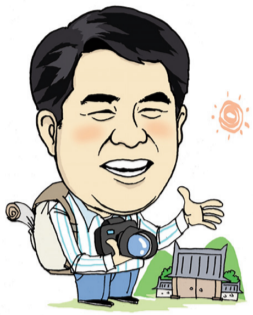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을 브랜드로 성공하려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Professional 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업무처리,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과 긍정적인 시각,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반응을 통해 전문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의 브랜드를 꾸준히 개발해야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살고자하는 욕구(신체적, 경제적,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사회적, 정서적), 사고하고 배우고자하는 욕구

(정신적, 지적), 사회에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영적, 삶의 의미를 찾는) 등의 4가지 방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브랜드화를 성공시킨 사례들을 살펴보면 'No pain, No Gain', 'Don't give up',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라', '주체적인, 주도적인 반응을 이끌어라' 등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직업이라는 것을 단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돈벌이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 이를 통해 자신을 브랜드화 하여 차별화된 특성을 만들어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경영인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윤병국 회장님의 특강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었던 특강들도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취업을 준비하며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끔은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치거나 참여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전문성을 갖춘 나만의 브랜드를 개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홍성덕 교수가 들려주는 '전주. 전주사람들' 이야기 ⑨

전주남부시장의 '희망가', 그 변화상

50년 낙후라는 꼬리표를 달고 반세기를 지내온 요즘 사람들에게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황현이 지은 『매천야록』에는 전주를 우리나라 3대 시장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주는 물산이 모이는 고장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물산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인 전주에서는 자연스럽게 문화적 향유력이 높아졌을 것이고, 문화향유력이 소리, 음식, 서예 등등 전주의 문화적 코드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전주에는 4개의 성문 밖에 정기적으로 장이 있었습니다. 남문밖 시장은 2일장으로 생활용품과 곡식을 거래하는 장터였으며, 동문밖 시장은 9일장으로 한약재와 특용장물의 장터가, 서문밖 시장은 7일장으로 소금, 깨와 같은 양념과 어물이, 북문밖 시장은 4일장으로 비단같은 포복과 잡곡을 거래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천에 놓인 다리를 중심으로 구별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싸전다리는 말 그대로 싸전이 중심이었고, 매곡교 부근은 쇠전 강변이라 해서 우시장이 열렸으며, 서천교는 설대전다리라 해서 담뱃대 장수들이 좌판을 깔았고, 완산교는 소금장수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소금전다리라 불렸습니다. 이외에도 성 안에는 상설 점포들이 들어섰으며, 거래품목들은 유기, 주석, 은 제품 등이었습니다. 결국 성밖은 먹거리 중심의 시장이었고 성안 시장은 수공업품 등을 파는 공산품 상점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5일장으로 열리던 조선시대 전주의 장터는 일본의 시장지배에 따라 정기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14년 일본의 시장규칙에 의해 재편되는 장터는 보통시장, 공설시장, 어시장·야채시장, 곡물·유가증권의 현물시장 등 각각 1호~4호로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상설시장으로 장터가 변화했고, 현대화한 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재래시장으로 불립니다. 남부시장은 1923년 서문시장과 통합된 이래, 전주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재래시장의 상징입니다. 2일, 7일 5일장이었던 남문밖 시장과 서문밖 시장의 통합은 일제의 시장규칙 뿐만 아니라 강점이 후 도시 상권을 장악해 나가는 일본의 경제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전주의 남문밖·서문밖 시장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완산철봉과 유연대를 잇는 능선에서 쏘아대던 관군의 대포로 철저히 파괴되었던 터라, 일본이 전주를 강점하고 식민지배를 시행했을 당시 시장의 점포라 해야 천번에 세워진 임시 가설점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문밖 성벽 밑에 자리 잡은 일본인들은 성벽이 헐려지면서 성벽이 있던 길을 따라 서쪽에서 남문방향으로 상권을 확장하게 되면서 1920년대 무렵에 이르러서는 다이쇼마치(현 웨딩거리)를 중심으로 전주의 상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2005년 1월, 전라북도청 제공

건물과 상거래가 근대화되었지만 시장 속의 문화는 여전해... 수백 년 이어온 장터와 장터문화 부활시켜 재래시장 활성화되길

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즈음에 바로 서문밖 시장은 남문밖 시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자, 남부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확장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1936년 10월 드디어 8동 36호의 시장건물이 증축되었고, 1937년에는 5천8백26평의 면적에 1등 상설점포 25호 225평, 2등 상설점포 11호 82평, 보통상설점포 44동 813평, 여채시장 1동 63평, 기타 사무소, 화장실 등이 세워졌고, 노점 1300평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남부시장을 대대적으로 증개축한 일본은 1등점포 25엔20전, 2등점포 22엔50전, 보통점포 19엔80전을 거두었으며, 노점 사용료는 1년간 1만 889엔 11전에 달하였습니다. 남문밖 시장에서 서민 물품 거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축용 목재시장은 남문밖 시장에서 거래되었지만 일반 서민들을 위한 팔나무는 남문밖 시장 이외에도 초록바위 밑 즉 남부시장 건너편에 장날이면 줄지어 나무 등집이 놓여 있었다고 합

니다.

건물과 상거래가 근대화되었다고 하지만 시장 속의 문화는 여전했습니다.

“술 뚜껑만 한 유성기 나발대에서 울려오는 화중선의 노래가락에 장단 가락이나 치다가 만병수 한병을 사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곳이며, “남루한 옷을 입은 중국 사람이 꿈이나 원숭이, 뱀 따위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재물을 떠는” “품바타령” 이 불리는 그런 민중의 삶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런 남문밖장과 천변의 풍경은 해방 이후에도 한참 동안 지속된 듯하다. 이런 모습이 사

라지기 시작한 것은 1968년에 시작된 남부시장 근대화 사업입니다. 남부시장 근대화는 총 8천3백 여 평에 점포 11동 (2,347개), 소요자금 6억1천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천변의 민중 문화가 점차 사라지게 됨에 따라, 재래시장에 남은 우리들의 상거래 문화는 그저 흥정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수백년 우리들이 이어온 장터와 장터문화를 부활시키는 것이 곧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지는 않을까?

/역사문화콘텐츠전공 교수





“마케팅에 부는 여풍(女風)”

교수칼럼

임승희 교수 (경영학부)

부인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소득의 증가로 높아진 여성의 구매력으로 시장 내 여성 시장의 매력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구매결정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 여성은 실제 시장의 많은 제품의 구매를 결정한다. 여성은 자신의 욕구 해결을 위해 개인적 구매를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구매 대표자로 가족을 대표해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집안에 있는 제품들의 대부분이 여성(엄마 또는 딸)에 의해 구매가 결정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남성 중심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시장에서도 여성이 구매를 결정하는 비율은 60%가 넘는다는 것이다. 국내 피자회사인 ‘미스터피자’는 고객 분석 결과, 주고객의 대부분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매장을 방문하는 남성의 70%가 여성의 손에 끌려움을 발견하여 ‘여성들을 위한 피자’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탄생시켰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수다스러움은 시장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여성은 타고난 스토리텔러(story teller)이다. 학교에서 매일 만나는 친구와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서 전

화 통화와 카톡으로 또 한 시간을 이야기한 후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게 바로 여성이다. 옆에 있는 모르는 아줌마와 바로 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사람 또한 여성이다. 제품의 구매와 사용 경험 역시 여성들의 대화 주제에 빠질 수 없다. 결국 여성은 구매 결정자일 뿐 아니라 정보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구매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구매영향력자인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시장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성 소비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 내 핵심 위치에 있는 여성 소비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마케팅 직종에서 여성의 장점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케터가 되고 싶은 남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여심(여심)을 아는 것은 분명 훌륭한 마케터가 되는데 자양분이 될테니, 미래의 마케터를 꿈꾸는 남학생들은 이 따사로운 5월, 잠시 마케팅 책을 덮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건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부는 여풍이 거세다. 대학의 수석 졸업자, 각종 고시 및 전문직 시험 합격자 이름에서 여성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으며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까이에서는 필자가 전공하고 있는 경영학 강의실에도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학생의 수가 매우 적었으나 지금은 절반에 가까운 여학생 수강생을 만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마케팅 영역 역시 여풍의 영향에서 예외가 아니며 최근 시장에서 여성 소비자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마케팅에서 여성 소비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이는 앞서 말한 사회의 여풍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직 진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높아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소득의 증가와 연결된다. 실제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 5쌍 중 1쌍은

사설

〈제60회 교육주간을 맞아〉

지난 5월 15일은 제31회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의 날 행사는 54년 전인 1958년 충남 논산 강경여고에서 시작되어 1963년 5월26일이 ‘은사의 날’로 제정했고, 1964년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날을 스승의 날로 바꿨다. 이듬해인 1965년 스승의 날 기념일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교육으로 극복하고자 시작된 교육주간이 벌써 6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스승의 날이 포함된 14일부터 20일까지를 제60회 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행복한 학교 따뜻한 교실’이라는 주제를 정했다. 특히 올해 교육주간은 학교폭력 근절 실천주간으로 삼아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벌였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서로에게 ‘감사합니다’와 같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화, 문자메세지, SNS를 통해 전하기 운동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현장은 위기에 처해있다. 학교폭력과 공교육 교실붕괴는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스승의 날, 교육주간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복음으로 낳는 교육(고전 4:14-20)이다. 복음으로 낳는 교육이란 첫째, 일만 스승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부끄럽게 하지 않는 교육을 의미하며, 둘째, 본받게 하는 교육, 셋째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진리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지식전달 수준의 교육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능력을 회복하는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야 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공동체는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될 것이며 결국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 질것이다. 제60회 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대학의 구성원간에 사랑과 배려, 이해와 소속감, 안전, 친밀함, 신뢰감이 이루어져 복음으로 낳는 교육현장이 실현되길 우리 서로 노력하자.

〈전라북도의 일자리창출 노력〉

요즈음 청년실업이 우리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래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1966년 252만 명이었던 전라북도의 인구는 일자리 문제로 인해 점점 감소하다가 1999년에는 200만명 아래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2009년도에는 185만명까지 하락하였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주요인은 전북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타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전북지역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라북도는 2012년을 맞이하여 관청은 일자리 44천개 창출, 100개 기업유치, 전북형 창업 2개 사업, 취업지원 및 인력양성사업 12개 사업, 지역특화 사업 30개 등 총 62개 사업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중 대학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계획으로는, 전북형 고용보조금 사업으로 청년취업 사업을 확대하여 올해에 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문사회, 예체능계, 이공계 중심의 산학관 커리큘링 사업을 확대하며, 취업연계형 계약학과를 5개 분야 7개 과정을 신설하고,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그랜드 취업박람회, 취업페스티벌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노력에 부응하여 우리대학도 대학생 일자리창출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대학의 발전은 지역사회와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지역이 발전하면 대학도 발전하기 마련이다. 전라북도의 대학생 일자리 창출계획에 맞추어 우리대학의 모든 역량을 산·학·관 협력이 집중하여 대학의 발전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태권도는 나의 인생!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며”

미니인터뷰

태권도의 차세대 선두주자 김재민 학우

Q 대단하다. 태권도는 김선수에게 어떤 의미인가

A ‘태권도는 나의 인생’이다. 중 1때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태권도와 함께 했다. 앞으로도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Q 제주도 출신이라고 들었다. 어떻게 전주대에 오게 되었다.

A 고3때 실적이 없어서 진학에 고민이 많았다. 코치님과 학원관장님을 통해 최광근 교수님을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 처음 전주에 와서는 낯설고 외로웠다. 지금도 가끔 집생각이 난다. (웃음)

Q 운동을 흔히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본인만의 자기관리 방법은?

A 하루에 3~5시간씩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 홍삼과 비타민을 챙겨 먹기도 하고.....

Q 태권도와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울텐데

A 매일 새벽, 야간과 전공실기시

간 등 하루 5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 강도 높은 훈련으로 수업시간이 힘들지만 학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Q 멘토로 삼는 분이 있는지?

A 최광근 교수님이 정신적 지도자. 큰 실적이 없던 나를 대학에서 기량이 꽃피도록 세심하게 잘 지도 해주시고 정신적인 면도 많이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A 모든 운동선수의 꿈은 올림픽 금메달이다. 나 역시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갖고 있으며 가끔씩 올림픽 시상대에 서는 상상을 하면 소름이 끼친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싶다. 선수생활을 마친 후에는 현재 지도교수님이신 최광근 교수님과 같은 유능하고 멋진 지도자가 되어서 좋은 선수를 양성하고 싶다.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재민 학우(사진/체육.2)를 만났다. 약간 거친 이미지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패션모델을 보는 듯했다. 흰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수줍은 웃음이 매력적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주대를 빛낸 태권도 선수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랑스러운 김재민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간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간의 전적이 궁금하다.

A 2011년 제38회 대학연맹개인 선수권대회 남자 -87kg 급에서 2위를 했다. 중간에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11월 제20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대학 태권도대회 겸 2012년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예선대회에서 1위를 했다.



■ 21세기 아는것이 힘이다
/ 21세기의 문화 · 포스트모더니즘



심상욱 교수
(영미언어문화전공)

“ 포스트모더니즘 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 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영향을 받지 않은 학문 영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은 학문 영역을 뛰어넘어 20세기 후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다. 실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과 예술에 국한된 문예적 개념만이 아닌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타난 21세기의 문화 현상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역사에 나타난 여러 사조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단일한 운동이나 경향이 아닌 2차 세계 대전이래 나타난 문화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기원은 프랑스에서 데리다나 푸코 등이 니체가 보인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출발하여 모더니티의 해부학이라 부르는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조는 니체나 데리다 등이 유럽중심주의 또는 로고스(이성)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기원’이나 ‘중심’ 개념을 ‘해체’ 하면서 나타났으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보다는 미국의 ‘예일대학학과’에 의해 미국에서 뿌리내려 포스트모더니즘을 탄생 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modernism)에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가 첨가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 ‘탈모더니즘’이나 ‘후기모더니즘’으로 번역되기도 했으나, post가 against(반대한), beyond(초월한), after(후에) 등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모더니즘이 다분히 유럽의 산물이었다고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다분히 미국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한국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시대에 TV, 컴퓨터, 특히 SNS(인터넷 웹상에서 서비스) 등과 같은 미디어 매체의 보급으로 한국문화 역시 포스트모던 문화의 주류 속에 있다.

II. 대중문화 속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사회와 대중문화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충성심이나 집단적 가치가 해이해지거나 해체되고, 점차 분파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1950년대 이후에 온갖 형태의 질과 양으로, 1960년대 이후에 온갖 형태의 질과 양으로 함께 어우러져 온갖 사람들이 서로 분류될 수 없게 섞여 온갖 같은 복잡한 형이상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융합 사회’ (melting pot society)의 붕괴와 계급과 개인적 상황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렵고, 가정과 같은 전통적 집단이 구속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사회로 변모할 수 있는 상품처럼 되어가

잡차 미국사회는 ‘샐러드 보틀 사회’ (salad bowl society)로 변모를 보이면서 미국인들은 그 동안 무시되어 왔거나 소홀히 여겨져 온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중심부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흑인 음악이나 멕시코의 문화가 백인들로부터 점차 관심을 받게 되었고, 모더니즘에 기초한 문화적 다양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에서는 팝 아트, 문학에서는 공상과학 소설이 중심적인 문학 장르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 문화는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다.

III. 포스트모던 도시

포스트모던성을 나타내는 포스트모던 도시의 특징은 ‘도시 산업화’를 지칭하는 ‘시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와 연계되면서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다룰 수 있는 용어로 정착 되었다. 도시에서 질 수 있는 곳은 바로 도시계획의 산물이다.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이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건축이 있는 곳이 도시로 ‘전주시’에 ‘전주’ 건물은 포스트모던 건축양식이다.

미국의 도시 중 LA는 포스트모던 도시의 이미 오래 전에 구성되어 있는 성은 찾아 볼 수 없다. 이 도시는 여기서 이곳 사람들을 계속해서 호스팅하는 도시의 각기 다른 규칙을 가지고 이루어진 대도시이다. LA가 시시대의 도시계획의 이론과 실제의 지침이 도시계획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하에 도시계획이 불가능하게 된 것 학에서 메타 담화가 불가능하다



즘은 문학과 예술에 국한된 문예적 개념 중문화, 가전제품, 역사, 일상생활 등 보 되어 나타난 21세기의 문화 현상이다 ”

의 유산이다. 대중사회 안에서
연대감 그리고 협력과 같은 개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대중이

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이 온갖
진 천 조각과 같으며, 모든 것
있어 화학실험실의 실험용기와
일어나고 있는 ‘용광로와 같
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회
관계는 훨씬 애매하여 이해하
적인 권위의 중심 역할을 한 것
며 사회를 선도하는 의견들은
고 있다.

을 사회’ (salad bowl soci-
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취급되어온 장르들이 새로운
부상하는데서 잘 나타난다. 미
의 록 음악과 같은 소수 민족
심을 받게 되면서 문화적 상대
다원성이 중시되게 되었다. 미
상과학 소설이나 탐정소설 등
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
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티라는 용어는 처
하는 말로 쓰였으나 다음에는
는 여러 사항을 지칭하는 용어
기, 경제 체제의 복잡한 윤곽을
다. 이러한 분야가 한 곳에 모여
로 생활공간의 설계와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다. 도
분야로 그러한 건축들이 모여
있는 ‘전주대학교의 스타세
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

포스트모던 도시라고 불리 운다. 이
제각기 분산되어 있어서 연관
평행 사변형의 고속도로가 있
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이
고 있는 소지역이 서로 모여서
하는 것은 수 천년 동안 서양
이 되어온 구심점을 가지는 도
는 점이다. LA는 단일한 법칙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철
는 말과 상통한다. LA에 있는

모든 것은 단일한 법칙 하에 수용될 수 없으며, 그곳의 특징을
일원화시켜 설명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양면성 내지는 다양성 때문에
단일한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이러한 도시의 모습은 상
파울루에서도 볼 수 있다. 상 파울루는 다수가 융합하여 제3의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닌, 다수가 서로를 하나의 개체로서 인
정하고 존재를 공유하고 있는 도시다. 그래서 상파울루는 하나
의 절대적인 얼굴을 갖고 있지 않다. 상파울루는 브라질의 모
든 얼굴을 갖고 있으며, 또한 세계의 모든 얼굴을 갖고 있다.
이곳에는 풍요와 빈곤, 고상함과 천박함, 현대와 원시, 동양과
서양, 노동과 휴식, 전통과 그 전통을 거부하는 조용한 반란,
아름다움과 조잡함 등이 한데 더붙어 있다.

IV. 포스트모던 역사, 가전제품, 그리고 마무리



‘역사는 정복자들에 의하여 기술된다’ 고 말한다. 이 말은
정복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역사를 기술한다는 말이
다. 이런 과정에서 피정복자들의 입장은 당연히 왜곡되고 은폐
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역사는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
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인디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
면 미국의 발견은 침략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백년동안
의 고독』에서 포스트모던 역사관을 볼 수 있다. 1982년
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이 소설은 현대의 고전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역사기술의 문제점을 극적으
로 형상화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바나나 회
사에 맞서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계엄령이 선포되
고 무려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부군에 의하여
학살된다. 정부 관리들은 역 광장에서 기관총으로 무참
하게 살해한 노동자들의 시체를 한밤중에 화물차에
실어다가 먼 바닷물 속에 수장해버린다. 그러나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계약으로 이 엄청난 사
건은 그 진상이 철저히 은폐되고 호도된
다. 파업을 주도 했던 호세가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후 마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만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다. 역
사가들은 이 사건을 아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거나 설령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과 전혀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한낱 권
력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조작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기술은 포스트모던 역사기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의 자데 교수의 퍼지(fuzzy)이론은 현재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퍼지 가전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퍼지’
의 의미는 ‘대략,’ ‘대충,’ ‘애매모호한,’ ‘보드라운’ 등
인데, 이 이론을 발표한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가전제품에 이
이론이 적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1980년대에 들
어서면서 이 이론이 가전제품에 사용되면서 퍼지 세탁기, 카메
라, 에어컨 등을 만들어 내 획기적인 선종을 일으켰다. 세탁기
가 척척 알아서 모든 색깔의 옷을 그 색에 알맞게 빨아주고, 카
메라는 태양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 명암을 조절해 준다. 서구
의 학자들은 애매모호한 것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퍼지이론
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동양의 학자들은 이 이론을 보다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시켜 가전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얼굴
에는 흔히 한 집안 식구 사이에서 발
견되는 혈육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세계 도처
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포스
트모더니즘은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동서양 구별 없이 끊임없이 변하
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
을 읽고 난 독자들이 포스트모더니
즘을 이해하는데 다른 의견을 갖는
다면 그 자체는 또 하나의 포스트모
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나고싶은 사람, 듣고싶은 이야기]



손해사정사 준비반을 지도하고 있는
김광국 교수

남과 화합은 잘하되 나의 주관은 명확하게 지키자

‘지금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라, ‘지금 바로’



「지난 16일 오후, 분수대에서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준비반 학생들이 김광국 지도교수와 함께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합격을 축하하는 세레모니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김광국 교수를 만나 그간의 일을 들어봤다.」

기자 : 축하드린다. 금융보험학과가 손해사정인 양성의 산실이라는 명성은 벌써 오래 전 일이다.

김교수 : 최근 5년간 전국 최고의 합격자를 배출해왔다. 올해는 20명의 2차 합격자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다른 대학 학생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있다.

기자 :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손해사정사 준비반을 지도했나.

김교수 : 금융보험학과 교수님들(김종국, 양희산, 은종성, 김광국) 모두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1997년도 입사 이전에 시간강사 시절부터 손해사정사반을 지도하게 되었다. 자격증 없는 지방대학생들에게 높은 연봉의 보험회사에 입사하는 길이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에 합격시키는 것이 절실했다.

기자 : 손해사정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지 말씀해 달라.

김교수 : 화재사고, 해상사고, 자동차사고, 상해사고, 질병사고 등이 발생되었을 때 사고원인 분석, 손해액의 사정, 보험사의 책임여부 판단 및 지급보험금의 산

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보험업법에 의하여 유자격자만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현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담당부서의 직원들은 모두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지녀야 하고, 한 손해사정사 아래 2명의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자격자들의 많은 수가 변호사처럼 개업하여 화재사고, 해상사고, 자동차사고, 상해사고, 질병사고 등의 사건을 수입하여 처리하고 있다.

기자 : 굉장히 광범위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김교수 : 손해사정사로 합격하면 대부분 보험회사 손해사정담당자로 취업이 되고,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서도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10년 개정 보험업법의 시행으로, 그간 손해사정사의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던 생명보험회사까지 고용이 강제화됨으로써,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의 손해사정사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사정사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최근 우리 학과에서 손해사정사를 합격하고 보험회사에 근무중인 졸업생들의 급여를 조사해봤다. 2010년에 여러명의 졸업생들이 S보험회사 과장으로 승진하였는데 과장 초봉이 1억원을 넘더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소식은 우리 금융보험학과 학생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기자 : 듣고 보니 놀랍다. 교수님들의 헌신이 없으면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들이다.

김교수 : 교수님들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열심히 따라와주고 있는 학생들이 고맙다. 또한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하여 불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학교 측에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자 : 와아~ 갑자기 손해사정사를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웃음)

김교수 : 언제든지 환영한다.

기자 : 손해사정사 합격을 위하여 금융보험학과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

매년 손해사정사반을 구성하여 지도하고 있다. 겨울방학 시작(12월 중순)부터 4월까지의 1차시험 대비반을, 1차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2차시험대비반을 8월말까지 운영한다.

2012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1주일에 3-4회씩 강의하고, 모의고사 실시하고, 채점하여 첨삭지도 하면서 지낼 예정이다.

2차시험이 끝나면, 다시 9월 초부터 보험심사역, CKLU, 보험중개사 등의 보험전문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개설하고, 12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다시 2013년도 손해사정사 1차시험 준비에 들어간다.

기자 : 손해사정사 준비반이나 금융보험학과에 교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김교수 : 손해사정사를 보다 특화해 나아가갈 것이다. 여기에 CKLU, 보험중개사, 보험심사역 등과 같은 보험전문인 자격증의 합격자를 더 키워나갈 예정이며, 영어 토익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점수가 너무 낮아 좋은 보험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프다.

기자 : 학생들에게 평소 공부 외에 강조하는 것이 있는지

김교수 : 우리 전주대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발표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정규교과목 시간에도 5분 스피치를 할 학생에게는 한 학기동안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발표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미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수험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모두 발표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에 더 노력하겠다.

기자 : 좌우명은?

김교수 :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화합은 잘하되 나의 주관은 명확하게 지키자고 늘 생각하며 살고 있다. 지금 우리 학교에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기자 : 마지막으로 전주대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김교수 : 전주대생 여러분, 아직 목표 설정을 못하였으면 지금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란다. 반드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르기 바란다. 실패한 사람의 말은 듣지 말라.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은 늘 ‘안된다’, ‘위험하다’, ‘하면 뭐하냐’ 등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실령 다소 허황되더라도 ‘하면 된다’ 또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고, 지금 바로 뜻을 세워 나아갈 것을 권한다.



<호주에서 온 편지>

좌충우돌 지웅이의 워킹 할러데이

“모든 게 재미있다, 그러니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 같은 주택에 외국인 커플들이 있어 언어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강지웅학우(맨왼쪽)

학교, 아르바이트, 교회.. 반복적인 생활이지만 즐거워

안녕? 불과 3개월인데, 안녕이란 말이 어색할 만큼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다. 나는 지금 친구와 함께 Western Australia의 East Perth 에서 살고 있어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 리무진버스에 오르는데 군대가기 전 버스에 탄 느낌이 들더라.

그러나 한편의 설레임이 더해졌어. 항공료를 아끼기 위해 홍콩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어. 어리둥절 앉아 있다보니 어느새 호주에 도착. 나도 한국에선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택시를 타

는 것도 길 하나 찾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 묻고 또 물어야 했고 그러면서 더듬더듬 영어인지 무엇인지.....한동안 어려웠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캐나다 한 커플과 베트남 두 사람까지 총 6명이 살고 있어. 다들 영어를 잘하니 영어에 많은 도움이 돼. 같이 사는 사람들과도 친해져서 보금자리를 얻음과 동시에 마음의 안정도 찾았어.

여기에 온 다음날부터 한 주동안은 이곳이 어딘지 파악하기 위해 무작정 집을 나갔는데 호주는 길에 이름이 있고 표지

판까지 잘 되어있어 좋더라. 그렇게 일주일 동안은 적응시간으로 정하고 핸드폰도 개통, 은행계좌 개설, 그리고 머리를 잘랐어. 그런데 호주 미용실은 머리를 안 감겨주는거야. 물을 아끼기 위해서라나? 나는 그 당시에 그제 인종차별인 줄 알았는데 자격지심이었던거지.

또 일주일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길을 나섰다. 한국에 있을 당시 작성해 놓은 이력서를 캐나다 친구들에게 검사를 부탁했어. 설마 했더니 역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수정되었고 정말 내가 작성한 이력서는 몇줄 안되더라. 이렇게 고친 이력서를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러 갔어. 이 때 내가 사용한 방법은 ‘무조건’ 이야. I'm lookin for job. Can you recive my resume? 를 외치며 엄청난 이력서를 내고 다녔는데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 워킹 할러데이 비자로 온 한국인들이 호주인 가게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면 한국인 식당, 그것도 안되면 고기공장과 과일,채소 농장에 가서 일을 한 대. 나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친구와 호주인 가게가 아니면 일자리를 얻지 말자고 결심하고 이력서를 열심히 냈는데 어느 곳에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한국인 식당에 이력서를 내려고 유명한 한국 호텔 식당에 들어갔어. 친구와 함께 이력서를 내고 오는 길에 우리가 처음 했던 다짐이 생각나서 집 근처에 호주 호텔식당에 이력서를 내봤어.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 핸드폰이 울렸어. 그 전화는 바로 한국호텔식당에서 온 전화였어. 친구는 일자리를 구하게 된거야. 처음에는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친구만이라도 일자리를 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하는 생각을 했어.

나는 백수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온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루 빨리 취업을 해야 했어. 조급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나에게도 드디어 전화가 왔어. 뭐라고 하는데 뭔진 잘 모르고 'ok' 만 반복해서 말했지. 그래도 알아들은 건 오후 6시에 면접을 보자는 거였어. 기쁜 마음에 전화를 끊고 보니 어딘지 모르겠는거야. 하도 이력서를 많이 내고 다닌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캐나다 친구에게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한번 더 전화해서 물어보면 영어를 못하는 걸로 파악하고 안뽑을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몇시간 동안 고민했어. 그래도 어딘지 모르면 기회조차 안주어 질 것이라는 생각에 전화하는 것을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영어로 준비한 뒤 통화했던 그 번호로 전화를 했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가게 이름을 말해줬으며 문자까지 위치를 적어서 보내줬어. 그렇게 그날 면접을 보고 나서 곧바로 일을 하게 됐어.. 호주사람들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섞인 주방, 즐거운 노동이었지.

호주생활 3달, 그간 학교와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교회를 반복했어. 처음이라 고생일거라고 했지만 처음이라 즐거워.

내가 오늘 너한테 편지를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냈던 호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보니 내가 무슨 ‘맨주먹 사나이’ 가 된 기분이야.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는 더욱 재미있을 것이고 더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내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줘. 또 소식전할게. 안녕

/ 강지웅(토목환경공학 2 휴학중)

2012 전주대학교 슈퍼스타 문학상 공모전

문학상 공모전

신문방송국에서는 학생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비문인 발굴을 통하여 문학분야의 슈퍼스타를 육성하기 위한 제 2회 전주대학교 슈퍼스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공모부문
가. 시: 3편 이상 제출 나. 소설: 단편 200자 원고지 120장 내외
다. 산문(평론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에세이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공모주제 자유주제

응시자격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응모요령
가. 응모작품은 과거에 발표되었거나 현상 공모된 바 없는 순수한 창작이어야 함.
나.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작성해야 함.
다. 응모원고 앞 면에 응모자의 성명, 소속(학과, 학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겹봉에 「슈퍼스타학술문학상 응모작품」이라고 기재할 것.
라. 심사는 관련분야 권위자를 위촉하여 실시하며, 당선작 발표와 함께 그 명단을 공개함.
마. 이미 발표된 작품이거나, 표절임이 밝혀질 경우 당선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함
바.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발표와 함께 그 명단을 공개함.

상 금
가. 시: 당선 70만원 / 가작 30만원 나. 소설: 당선 100만원 / 가작 50만원
다. 산문: 당선 70만원 / 가작 30만원 * 작품의 수준이 시상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당선자 발표 및 시상
가. 당선자는 2012년 10월 중 대학신문에 발표하고 개별 통지함.
나. 당선작은 대학신문에 게재함 다. 시상식은 2012년 11월 중에 실시함.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2. 9. 24(월) - 9. 28(금)
나. 접수장소: 신문방송국 사무실 560-759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학생회관 3층) ☎ 063-220-2441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라. 제출서류 - 원고 사본 2부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063-220-24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선택은 믿음이다.”



겨자씨



윤마병 교수
(과학교육과)

교정의 연두빛 아름다움이 점차 짙어지면서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5월이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2012년의 초여름은 이처럼 아름다운데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진리를 잃어간다. ‘더 높은 비상’을 꿈꾸며 슈퍼스타를 닮아 가야 할 우리들도 잘못된 선택과 방황으로 헤매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과학철학자 포퍼(K. Popper)의 말처럼 ‘삶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요즘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더욱 그 염려와 안타까움이 커져가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과 욕망을 포기하거나 잠시 유보하고, 더욱 크리스천의 향기를 품기 위해 선택하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화 ‘선택(2003)’은 비전향 세계 최장기수로 기네스 북에 오른 김선명의 삶을 다룬 영화이다. 경기도 양평에 살던 김선명은 6.25 전쟁 당시 공산당원이 되어 전쟁에 참전한다. 결국 국군에 생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45년 동안 사상을 포기하는 전향서를 쓰도록 계속 권유 받았지만, 그는 양심이라고 믿는 자신의 가치를 선택한다. 94살까지 자식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만다. 2000년 김선명은 석방되어 자신이 선택한 북으로 갔다. 이때 그는 75살의 총각이었다. 이 영화를 보면 김선명이 꿈꾸던 세상과 현실의 옹골 그를 따지기 전에 왜 20대의 짧은 소견으로 결정한 가치를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는가이다. 그는 45년의 삶을 감옥에서 살면서 자신

의 꿈과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선택’을 스스로 포기했다. 선택 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것은 반드시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믿음도 선택이다. 믿음을 가질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누구를 믿을 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죄와 거룩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믿음과 불신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세상을 버렸다. 다니엘은 사자굴과 믿음을 선택했고 총리자리와 생명을 버렸다. 뚝은 풍요로운 고향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난의 땅으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광야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편안함을 버리고 여호와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처럼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선택인 것이다. 선택에는 불확실함이 따른다. 버려야 할 것들이 세상에서는 소중한데 얻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것을 버릴 때에는 더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선택이 더 좋은 것임을 확신해야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다. 심지어 다니엘처럼 죽음이 더 좋은 것임을 확신해야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김선명이 지킨 양심은 20대 초반에 얻은 것이다. 조금만 더 다른 사람의 시각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어땠을까? 자신의 신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94세 노모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브라이언(W. J. Bryan)의 말처럼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임을 생각하게 한다. 오늘 우리도 젊은 청춘의 시절에 어리석고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육이 아닌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현재의 만족을 지연하며 ‘더 높은 비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죽음학: 마지막을 평온하게, 완화의료의 권유〉, 〈남은 시간은 6개월, 인생을 충실하게 마무리 하는 방법〉과 같은 저서를 통하여 완화의료, 생과 사에 대한 문제, 존엄한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 준 오츠 슈이치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전문의이다. 그는 실제로 죽음 앞에 선 1천 명의 말기 환자들이 남기는 마지막 후회들을 모아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란 책을 내놓았다.

저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내뿜은 진솔한 고백을 스물다섯 가지의 ‘~했더라면’으로 서술해놓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벚꽃도 후회라는 걸 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시간에 관계없이 꽃을 피운다는 소명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고 답한다.

어떻게 시간에 관계없이 꽃을 피우는 생을 살 수 있을까? 의의 면류관을 소망 삼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새롭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7,8). 아멘.

/ 장선철처장(선교지원처)



진리의 샘

“하나님의 대학과 두 소리”

(에스라3:8~13)



이용범 목사
(호남교회)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으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자신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서 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보니 기가 막힌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 온 도시가 참담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참담한 것은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힘을 모으는 광경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70년간의 포로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혹한 시련의 시기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로생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기적인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포로생활 이전이었다면 먼저 자신의 집을 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기초를 놓을 때 통곡소리와 합성소리가 함께 동시에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통곡소리는 옛 성전 즉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생활 이전에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성전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성전 기초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통곡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회개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이 지경이 되었다는 간절한 회개의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전 기초 예배 가운데 들리는 두 번째 소리는 기쁨의 합성소리입니다. 나이 많은 세대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반해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합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옛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세대로 오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제 자신들의 본국에서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합성소리를 지르는 젊은 세대의 기쁨과 예전의 웅장했던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든 세대의 통곡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존경하는 전주대학교 가족여러분! 기억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회개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눈물과 회개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은 춤추며 노래할 때가 아니라 회개하며 눈물 흘려야 할 때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통곡이 곡식단을 거두는 기쁨의 합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주대학교에 회개의 통곡과 기쁨의 합성소리가 함께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들려야 할 소리는 회개의 통곡소리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합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의 합성이 소리 높여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전주대학교의 교직원들이 학교와 후학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이 대학교에는 이런 기쁨의 노래가 캠퍼스에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채플, 고건총장 '창조과학' 특강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5월 15일(화), 고건총장의 '창조과학' 특강을 부흥채플에서 진행하였다. 강의 전마다 채플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고건총장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별히 11시 채플에는 전주대 모든 학우를 대표하여 총학생회에서 꽃다발을 고건총장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400여명의 학생들이 고건총장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내민 장면은 우연찮게 스승의 날인 당일, 그 의미가 더욱 컸다. 특강의 주된 내용은 그동안 과학이라고 믿어왔던 진화론의 모순점을 밝혀 창조론의 진실성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덧붙여 고건총장은 "젊은 시절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지만 너무나 미흡하

었던 지식으로 인해 20년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결과 오늘날 이렇게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특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한 전달하였다. 이번특강은 9시 30분 첫 채플을 시작으로 4시 30분 마지막채플까지 총 5회 진행되었다.

학생생활관 BCR(Best Clean Room) 콘테스트



청결과 에너지절약을 중점적으로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에서는 관생들의 정리정돈 습관을 생활화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관을 만들기 위해 4월 17일(화)

부터 제6회 BCR(Best Clean Room) 콘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BCR 콘테스트 심사 기준은 관실의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와 에너지 절약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관생자치 위원회와 관생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여 청결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본래 취지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2012년 1학기 BCR(Best Clean Room) 콘테스트에 신청한 20개 관실 중 1차 심사를 5월 14일(월)에 진행하여 6개 관실을 선정하였다. 2차 심사는 1차에 선정된 6개 관실을 대상으로 관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투표로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스타타워 1층 로비와 스타빌 식당입구에서 진행한다. 1·2차 심사 점수를 종합하여 2012년 1학기 BCR(Best Clean Room) 콘테스트 우수 관실을 선정하여 5월 24일(목) 오프하우스 행사 당일 시상할 예정이다.

학생생활관 스타시네마 "우리가 예약하는 스타시네마"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에서는 관생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1회 지정된 영화를 상영하는 기존 스타시네마를 "우리가 예약하는 스타시네마" 라는 제목으로 주 단위 지정된 영화 상영이 아닌 관생이 희망하는 영화를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매주 토요일 15시와 19시 주 2회 스타타워 세미나실에서 상영하고 있다. 최신영화, 다큐, 단편영화 등 자신이 선호하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기 원하는 많은 관생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가 예약하는 스타시네마" 라는 제목으로 주 단위 지정된 영화 상영이 아닌 관생이 희망하는 영화를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매주 토요일 15시와 19시 주 2회 스타타워

워 세미나실에서 상영하고 있다. 최신영화, 다큐, 단편영화 등 자신이 선호하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기 원하는 많은 관생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전주대학교
대학교회

예배안내 -담임목사 김승수-

- 주일예배 - 주일 11:00
- 대학부예배 - 주일 13:30
- 중국어예배 - 주일 16:00
- 수요성경대학 - 수요일 19:00
- 새벽예배 - 월~금 06:00

일대일제자양육 첫 모임

새롭게 시작되는 2012년 일대일 양육이 첫 발걸음을 뒀다. 지난 7일 대학교회 친교실에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모여 첫 대면의 시간을 가졌다. 격려차 참석하신 고건총장은 "일대일 양육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기독교 정체성 위에 세워진 본교가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더욱 굳건하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 이

라며 일대일 제자양육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번 모임에는 양육자나 동반자로 일대일 제자양육에 참여하는 2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이 시간을 통해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얼굴을 알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진위 중 · 고등학교 채플 지원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지난 11일(금)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진위 중 · 고등학교에서 채플을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선교지원처와 입학지원처가 함께 진행하는 고등학교 채플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독교고등학교의 채플 시간을 맡아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주대학교를 알리는 알찬 프로그램이다. 찬양시간은 전주대학교 연합 채플밴드가 맡아 진행하였

고, 부흥채플 설교자인 권복음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진위중 · 고등학교 1000여명의 학생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였으며 채플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진위 중 · 고등학교의 채플 지원을 첫 시작으로, 2012년 한 해도 5~7여 곳의 학교에 채플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발협 신규조직을 위한 간담회

남원,순창,임실 지역 내 조직구성 협의

우리대학 발전을 위해 중보기도로 후원하는 단체인 '전주대학교 발전 목회자협의회' (이하 전발협)가 도내 다른 지역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발협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지역의 200여 교회 목회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조직 확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5월 11일(금) 남원, 순창, 임실 등의 지역을 각각 방문하여 전발협 확대를 위한 지역교회 목회자와

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고정수실장(선교지원실), 전주전발협 총무인 오성택목사(남전주성결교회)외에, 각 지역교회 목회자들인 임실기독교 연합회장 김운배목사(임실성덕교회), 김형만목사(순창제일교회), 김범준목사(남원동부교회), 김문일목사(남원교회)등이 함께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남원,순창,임실 지역 내 조직구성을 위해 일정 등을 협의 하였으며 6월 이내에 발기인 대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교동정

| 고 건 총장

- 05.20(일) 대학교회 특강 '사랑으로 하나되는 전주대학교'

| 장선철 처장

- 05.09(수) 연세교회 특강
- 05.10(목) 함양 목회자 세미나 특강
- 05.16(수) 여산교회 어머니기도회 특강
- 05.19(토) 수지교회 청년부 특강
- 05.22(화) 중부교회 특강
- 05.23(수) 삼천초등학교 특강
- 05.28(월) 문막 사본교회 특강



丽水海洋之旅

—参观2012丽水世博会归来—



李莹
(经营学部 3年级)

丽水世博会开馆的第二天，我们怀着激动的心情，从全州出发来到丽水，参观了这一场期待已久的海洋盛会。

经过2个多小时的颠簸，我们一行40余人终于到达了本次旅

行的目的地-丽水世博园。进入园区，首先映入眼帘的正是宣传中美轮美奂的水族馆，这座水族馆堪称是韩国规模最大的水族馆，在这里不仅可以观赏到世界级珍稀水生生物种，还能见到形态各异的海洋生物。再往里走，现在我们面前的是矗立在半圆海湾的巨大“0”形雕塑。造型取自英语“ocean”的首字母，也是丽水世博会的标志。它也可理解为数字“0”，标志着从零开始在海洋寻找新的起点。值得一提的是，直径35米的“巨0”不仅是一个标志，更是一个多功能的表演设施。它采用画质鲜明的水幕投影技术，利用水雾、激光、火焰等演绎出美轮美奂的多媒体特效，并与前方的超大型海上喷泉阵、水中浮沉舞台一起，构成一个巨大的演出设施群。夜

晚时分，在辽阔无垠的大海上，我们看到了wonder girls等众多韩国明星及人气组合在这里推出的华丽的公演。

11点左右我们来到了预定的韩国馆参观，通过观看2个小电影我们了解到了韩国人的海洋精神与海洋实力。从媒体中心出发，最先映入眼帘的便是挂在天花板上的“世博会数码画廊”。这一“天

上画廊”长218米，宽30米，高27米，是一座结合数码和灯光艺术的海洋文化艺术画廊。影像不

时变幻，短短的时间里，我们可以在这里领略韩国古代传说《沈清传》的精髓，观看“梦想鲸



护海洋的努力。

鱼”海底世界的的神奇，欣赏韩中日儿童海洋主题绘画精品。作为一项互动项目，如果通过智能手机或因特网传递照片或短信，还可以在屏幕上看到自己的作品。中午在国际馆参观许多国家的展

通过这次赏心悦目的世博之旅，我们真切的了解到了现在地球的海洋环境正在以超乎我们想象的速度恶化，保护环境，实现陆地与海洋、人类与自然的和谐共存是当务之急。

同时非常感谢经营学部为我们组织了这次参观活动，希望以后能够有更多这样的机会。

作为留学生，你合格吗？



李泽昱
(国语国文 3年级)

也许你已经或正在淡忘这么一个事实，那就是你是一名身在异国的留学生。无论是在韩国，还是在日本，美国，欧洲，我们都要有一种意识，做一个合格的留学生。

一、明白自己出国的目的

我们出国是为了什么？诚然，上个好大学，找份好工作，优越的环境和锦绣的前程无疑是最重要的原因。但是你有没有想过，出国不是只为了自己，也为

了国家。一个国家的发展是受金融、科技和政治综合影响的。而各个领域的领袖人物都是受过良好教育的，绝大多数人是受过良好教育才得以成为成功人士，教育是社会的根源，它是最重要的部分，一个人的思想取决于他所受的教育。相比之下，中国的教育不及美国，这就是导致现在中国弱于美国的重要原因。

出国是为接受良好教育，这是毋庸置疑的，但学成归国，师夷长技，发展祖国，才是一个合格留学生应该时刻铭记的。

二、传播中华文化

出国不能忘本，师夷长技用以制夷，而非自弃。我们需要传播中华文化，现代经济的落后并不能掩盖中华文明的光辉。孔子，老子的思想一直传承到今天并影响着整个世界！

我们需要交流，只有交流才能传播中华文化。交流的根本是语言，如果语言不通，那么再好的文化也不能传播出去。作为一个合格的留学生需要有很强的语言能力，学好韩语是万务之宗！

提高个人素质也十分重要，在与别人交流时，自身的修养素质会影响别人对你的看法，也影

响着别人对中国的看法，自身素质的高低能折射出你是否具备传播中华文化的基本素养。这种国际性的交流不单单是代表个人，更代表着你背后的祖国。

三、自身的各种能力

论努力，中国学生不比任何国家的学生差；论聪明，中国学生也总能做到专业内部的佼佼者。我们的勤奋智慧是被广泛认同的，所以世界各国的名校里从来不乏中国籍的留学生。

不过，虽然中国学生的成绩很好，但如今的形势却是每况日下。随着出国留学从精英留学到大众留学的转变，出国留学已不再是少数人的专利，但这也导致留学生素质的参差不齐。国外名校很多都很看重你是否参加过社会实践，是否有创新精神和协调能力。在这一点上，我们一直在接受教训。

作为一名国际复合型人才，不仅要具备良好的沟通与表达能力，运筹帷幄于人与人之间的沟通交流，同时也要拥有区别于他人的优良品质与技能，这样才能在激烈的竞争中脱颖而出，实现自我价值的同时捍卫和彰显祖国的荣誉！

韩国全州被联合国教科文组织 评为全球第四个“美食之都”



彩也更为鲜艳。用骨头汤煮的饭上配上生肉片，绿豆凉粉，豆芽等食物的全州拌饭作为韩国料理的杰出代表在美国，欧洲及世界各地受到广泛欢迎。

韩定食堪称全州饮食的第二大经典。韩定食的小菜种类繁多，甚至出现了“饭桌的桌腿都被压弯了”的流传。种类一般有30~40种，多的甚至能达到100多种。可能真是因为如此，在韩国各地的饭店商家中，以“全州饭店，全州韩定食，全州拌饭，全州醒酒汤……”等与全州相关名称命名的店铺特别多。截止去年年末，韩国共有2300多家这样的饭店。

“全罗道女性比其他地区的女性更擅长料理，而这其中最值得称赞的是全州女性的料理方法了。除了味道之外，餐桌的摆放和食物的色彩都很出众。首尔的女性去了全州后，都会留着眼泪乘坐湖南线的特快火车赶紧逃离全州”。这是1928年月刊《别乾坤》12月刊上刊登的文章《八道女性家务活评判记》的部分内容。

全罗北道全州自古就以“味道之乡”之名闻名于世。周边湖南平原上出产粮食、蔬菜和水产品，食材丰富，再加上非凡的手艺和深厚的历史积淀，全州比其他地方的食物种类更为丰富，色

远近闻名的全州饮食现在已经迈出韩国，在全世界范围内得到了认可。5月15日，全州被选为联合国教科文组织（UNESCO）指定的美食之都(gastronomy)。全州是韩国首个美食之都，也是继波帕物（哥伦比亚，2005）、成都（中国，2010）和厄斯特松德（瑞典，2010）之后的全球第四个创意饮食城市。



By Steven Lindbergh

The Search for the Ideal Student

tity.

Among the conventions of behavior and attitude listed above, the one that affects student success in the most negative way is social distraction. It is usually for social reasons, that students are absent or tardy, do not do homework, text others during class, talk or sleep in class, do not ask questions or participate in the lesson. Chief among these culprits is absenteeism. By not making classroom attendance their priority, students' miss essential instruction resulting in gaps of understanding; gaps that usually are too wide to overcome in order to fully grasp the material.

When a student does not consistently give their best effort they most often miss the opportunity to make important mental connections of the concepts they are learning. Lapses in focus can create confusions that can alter the entire understanding of a subject. This can jeopardize the student having a complete synthesis of the material. This let up of effort is often the consequence when a student's goal is only to get a certain grade and not to learn a subject for future use.

A student can lose ground in their studies by a lack of organized preparation. When they don't bring books, paper, writing utensils, they waste time and start to form the habit of being ill prepared. One vital habit that the ideal student would possess is in taking well organized and thorough notes and to study them regularly.

A dedication to ethical standards of classroom conduct

helps boost a student's confidence level. When a student cheats or exhibits rude behavior, they are really indulging in self-deception as their conscience will naturally lower their self-esteem. So, by styling their learning effort on an ethical path of honesty and courtesy a student is free to concentrate fully on their studies.

With a willingness to embrace an attitude that is focused on solving problems, through creativity and imagination, a student will reap the benefits of asking questions and participating in lessons. This self-motivated attitude is optimum for students becoming proficient problem solvers.

One major frustration for teachers is when students disregard their suggestions or directions. The emotional response the teacher feels is to conclude that the student does not trust their ability, experience, and knowledge, thus inhibiting the teacher's enthusiasm to teach. No matter how proficient a teacher is, if they are to be optimally effective, they must feel that students believe in them. Since a teacher's motives are well intended, a student who does follow suggestions and directions will progress more rapidly, thus succeeding to a higher degree.

Unfortunately, the ideal student does not come along to often. When they do arrive, though, it is a joy to teach them and a great reward to know that, as their teacher, I helped prepare them for the success they will surely achieve.

Having been a teacher for many years and having taught in many different places, to many different age levels and skill sets, I have experienced that ambition many teachers experience, and that is to teach students who are ideal students.

The attributes that encompass an ideal student are manifold: commitment to their studies beyond social distractions, enduring motivation to put forth their best effort, organizational skills that enable and enhance their learning experience, dedication to ethical standards of classroom conduct, willingness to embrace an attitude that is focused on creativity and imagination, and cooperation and open-mindedness in following and considering the suggestions and dictates of their teacher.

When I think of students in a general sense, I am presented with a summing up of all the students I have taught over the years. Since I first started teaching in the United States, in 1979, this creates quite an amalgam of success stories and failures. Also, teaching students from so many different cultures has helped meld this image of an ideal student into an even more defined en-

TREAD CAREFULLY



By Paul Bolger

There was once a young boy who loved all animals. He would sit at the very top of a huge old tree behind his house and watch the neighborhood animals from there. Sometimes he would imagine that he was an orangutan and dream for so long that he would sleep in the tree, just as they do.

He often went to the city's little zoo to visit his zoo-friends. One night, he had a wonderful idea. He and his father wrote letters to the zoo. They collected money in shopping malls for nearly 6 months. Finally, every animal in the little zoo received a special food treat from their home country. The boy and his father often talked about this day. "It was the best day of my life dad!" he always said, "I was zoo-happy!"

One day he was running to school when he saw 2 caterpillars crawling on the path. He scooped them up and put them into his lunchbox with some lettuce.

That afternoon he climbed high into his tree and put the caterpillars on the highest branch. The

next morning there were 2 shiny cocoons. He checked them every morning and night. After 10 days he found a hole in each cocoon. He looked all around for 2 big beautiful butterflies. He did not find them. He knew they had flown off and were probably miles away by now.

The butterflies were certainly a long way away. As they had hatched in such a tall tree they had flown higher than any other young butterfly had flown before. The strong wind above the trees had pushed them thousands of feet up into the sky and then carried them over a thousand kilometers in just a few hours. Finally, the 2 butterflies came down on a tiny island in the middle of the ocean. A month later, butterflies filled the air, and countless caterpillars crawled around the island. It was a butterfly paradise. Soon millions of stunning butterflies filled the sky.

Years later a yacht passed by the tiny island. The captain saw a colorful cloud and investigated. Soon 'Butterfly Island' was a popular destination for tourists.

When the boy was a young man he went to university in the big city and studied zoology. He did very well, as you can imagine. Years later our young zoologist took his girlfriend to Butterfly Island. He proposed to her amid a rainbow of butterflies. She cried and cried when he asked her to marry him. The young man was worried. He frowned and asked her, "Are you sad?" She grabbed his hands then, and she looked deeply into his eyes, "I am not sad" she said, "I am zoo-happy!!"

Bible Devotion

"The View Is Better From The Bottom"



Scott Radford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James 1:2-4 NIV)

Niagara Falls is the collective name for the Horseshoe Falls and the adjacent American Falls along with the comparatively small Bridal Veil Falls. Located on the Niagara River which drains Lake Erie into Lake Ontario, the combined falls form the highest flow rate of any waterfall in the world, with a vertical drop of more than 165 feet (50 m). Horseshoe Falls is the most powerful waterfall (vertical height along with flow rate) in North America. The volume of water approaching the falls during peak flow season may some-

times be as much as 202,000 cubic feet (5,700 m³, 5.7 million liters) per second. During the summer months, 100,000 cubic feet (2,800 m³) per second of water actually traverses the fa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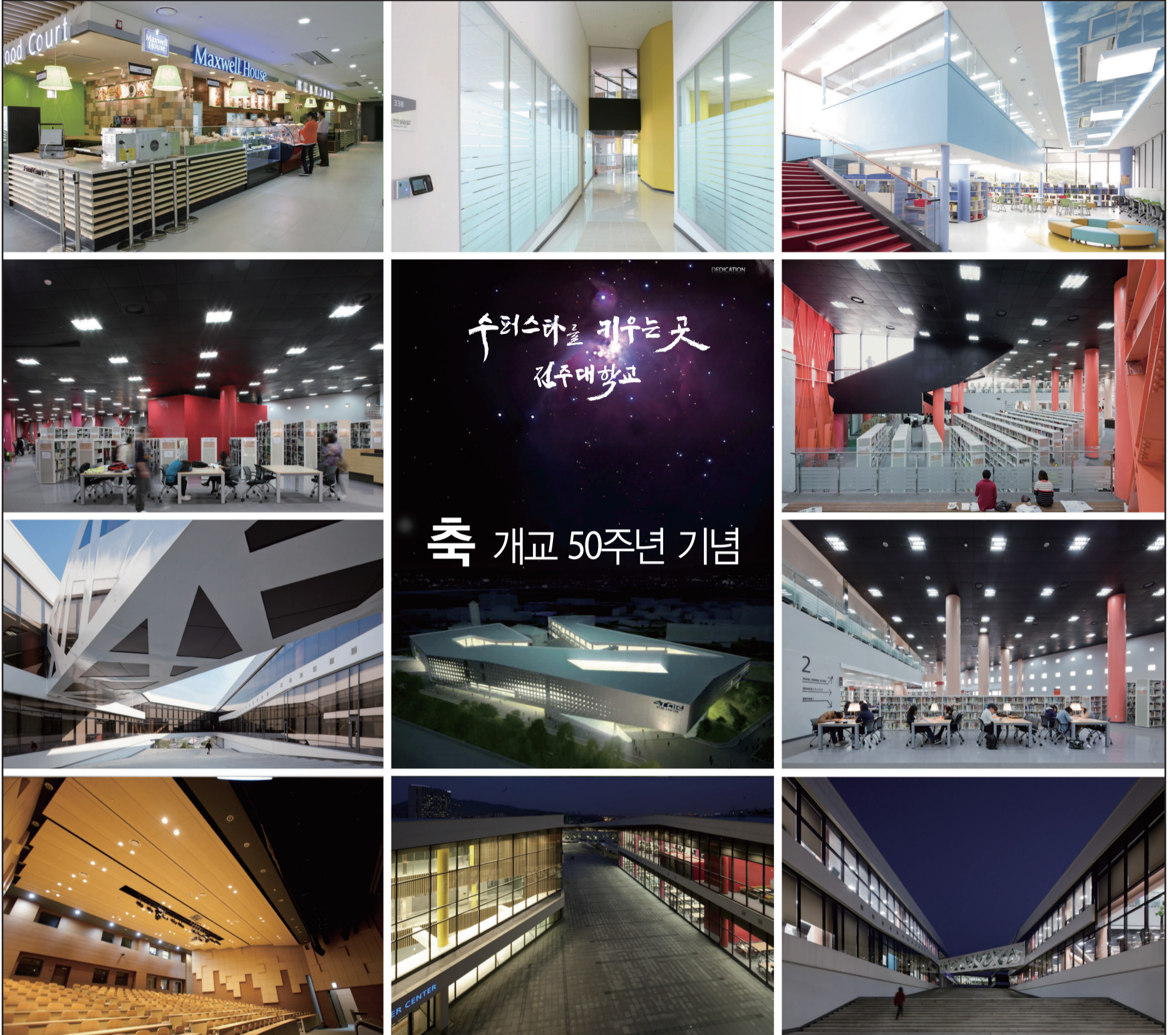
I remember visiting there one time and I was taking pictures from the top when someone approached me from behind: "The view is better from the bottom," she said. I turned around to face the one who was speaking to me. "The view of Niagara Falls is truly better at the bottom," she repeated. So, I thought I would take one of the famous boat tours along the bottom of the falls. Once I was on the boat I now had a better grasp of the

splendor of these falls. The view truly was better from the bottom!

Isn't it so in life as well? When things are going so well how often do we think of our Lord? Or do we tend to forget about Him completely? Do we realize who He truly is? Only one thing is for certain: When we are facing trials, we learn to admire how majestic God truly is, especially when we are waiting for Him to come through for us. It doesn't mean we will have an easy time. Far from that! Even Jesus confirmed this: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John 16:33 NIV). However He will never leave us, and if we are attuned to His voice, we will discover

who He truly is. Why worry when we know we can anticipate that God will come to our aid! "I will rescue him; I will protect him, for he acknowledges my name. He will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him;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Psalm 91:14, 15 NIV). Although none of us like the valleys of life, they offer us an opportunity to discover how faithful our God truly is. The view is truly more awesome from the bottom. Contemplate the splendors of our Maker amidst our trials, and we can't help but rejoice amidst our afflictions.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

축 개교 50주년 기념

전주의 랜드마크를 넘어 세계의 랜드마크로 성장합니다

2011년, 도서관을 포함하는 복합문화관 스타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이로써 1,700억 원 규모의 교육재원을 투입한 원대한 마스터플랜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학교육을 리드하는 전주대학교의 혁신적인 시도는
넘버원을 넘어선 온리 원 인재를 길러내는 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jj.ac.kr>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
전주대학교 

2012학년도 후기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특별전형> 2012.05.14(월)~05.17(목) 일반전형 <2012.06.11(월)~06.14(목)>
문화산업/행정/경영대학원 2012.06.04(월)~06.29(금) / 대체의학대학원 2012.06.18(월)~06.29(금)
선교신학대학원 2012.06.04(월)~06.29(금) / 교육대학원 2012.05.21(월)~05.31(목)